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세제 이슈

- 부가세 인하,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 활동에 영향 有

4P

“이제는 공급망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by 중남부코참 최분도 회장

20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	Meet Korea 2023 박닌 17
☑ <특별인터뷰>	중남부 코참 최분도 회장 20
☑ <법률>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전현우 변호사 24
☑ <중재> 중재의 절차	대한상사중재원 26
☑ <통관>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28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롱안성>	29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5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0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는 베트남 스마트시티 시장동향

- 베트남 정부,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적극 추진
- 지방 성시별로 추진정책 달라 현지 시장동향 면밀히 파악할 필요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의 국가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 및 지연됐고 신규 입찰도 대폭 감소했으나 최근 지역별 여러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등 베트남 스마트시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망 분야별 동향

- 1) 교통인프라: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 인근의 주요 고속도로 및 교통운영센터를 중심으로 감시카메라, 교통신호, 교통측정모델 등의 솔루션 및 ITS가 이미 도입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1년 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PPP법이 발효되면서 지연됐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하수도, 도시홍수방지, 도로교통 등 교통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2) 스마트의료: 팬데믹으로 원격 및 비대면 의료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며 관련 ICT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국가 의료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ICT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며, Vinmec, Medlatec 등 대형 병원에서 복강경, 척추수술 등 일부 시술에 로봇 수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술의 스마트화도 적극 진행 중이다.
- 3) 에듀테크: 베트남 교육부는 2021년 이러닝 포털을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를 전면 확충했다. 이를 통해 전국 5만3000개 학교, 140만 교사, 2400만 학생의 식별코드의 국가 데이터베이스화를 2021~2022년 전국 학생의 80% 가량이 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으며, 전국 대학의 약 50%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했다.

베트남 스마트시티 진출, 기회 및 장애요인은?

베트남의 도시화 지속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스마트시티 시장은 정부의 전략적 마인드 부재, 예산 부족, 관련 기술 및 인프라 부족으로 선진 국가들로부터의 노하우 및 학습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기업들의 수요가 다대한 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와 지방성의 스마트시티 도입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단일 기구나 부처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고 여러 지방 성시별 또는 관련 기관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울러, 행정 당국의 더딘 행정 처리와 공사 지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관련 산업 인프라 취약과 같은 장애요인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 베트남 자동차 제조산업의 지속 성장으로 부품 수입수요 급증
- 한국 브랜드 완성차 판매확대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기대

시장 규모 및 동향

2022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판매량 기준 최초로 500,000대를 돌파하였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한 자동차 생산량도 439,600대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8.96%에 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도요타, 혼다, 포드, 현대, 기아, 마즈다 등 글로벌 기업과 빈페스트 등 베트남 브랜드 완성차 회사가 현지 자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베트남 진출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의 자동차 부품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현지 완성차 기업의 베트남 내 생산방식은 주로 CKD(Completely Knocked Down)이다. 연료 파이프, 워터탱크 커피, 타이어 등 일부 부품만 현지 조달하고 엔진, 변속기, 기어 박스, 안전 시스템 및 전자제어 시스템 등은 해외 브랜드사 제품을 수입하여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2021년 차량용 부품과 부속품 전체 수입액은 약 4억 3,157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한국(24.4%), 중국(23.4%), 태국(18.5%), 일본(16.8%) 등으로,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액이 2021년 전체 수입액의 83%를 차지하였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1년 기준 약 1억 540만 달러로 연평균 13%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액기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차량용 부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경쟁동향 및 주요 기업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THACO, TOYOTA, HYUNDAI THANH CONG 3개사가 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50%를 상회한다. THACO는 두 개의 주력 브랜드인 KIA와 MAZDA가 각각 13.7%와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Peugeot 및 BMW 브랜드를 포함한 총 시장 점유율이 25.3%에 달한다.

시사점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매력 향상으로 자동차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 거대 내수 시장이자 글로벌 공급망 체인 거점 시장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베트남 중부지역에는 THACO에 이어 Kim Long Motors가 최근 KG모빌리티와 베트남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다낭 인근 후에(Hue) 산업단지에 KG 모빌리티 전용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이처럼 현지 자동차 생산시설이 확충 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타 국가로부터 수입비중 확대는 우려된다. 한편, 현지 로컬 생산기업 일부는 자체적으로 부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품목의 로컬 생산에 따른 수입 대체 리스크도 주목된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세제 이슈

- 부가세 인하,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 활동에 영향 有
- 연장 신청서 제출 등 반드시 수혜 조건 및 관련 절차 확인 필요

2023년 5월까지 베트남에서는 몇 가지 굵직한 세제 이슈가 발표됐다. 우선 지난 2월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이에 따라 소득원 및 금액의 편차가 다양해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이 많아 현 대내외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외에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는 부가가치세 인하 및 납부 기한 연장이 있다.

부가가치세(VAT), 2023년 12월 31일까지 10% → 8% 인하 제안

지난 6일 베트남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위한 결의안의 초안인 Nghi Quyet 72/ND-CP(Resolution 72/ND-CP)를 발표했다. 초안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MOF)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로 감면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3년 1분기 베트남 경제 동향

지난 3월 29일 베트남 통계청(GSO)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베트남 사회경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에 휴업 및 영업 일시 중단을 신고한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한 4만2900개였다. 영업 중단 및 폐업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약 1만2800개, 폐업 절차를 완료한 기업은 6.5% 증가한 약 4600개였다.

부가세 감면, 경기 부양 효과는?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일부 산업 제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10%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호 득 펙(Ho Duc Phoc) 베트남 재무부(MOF) 장관은 부가세 인하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 49조4000억 동(당시 환율 적용 시 약 2조6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2022년 부가세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소득세 등 기타 세목을 인하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소득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인하에 비해 부가세 인하 적용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사점

베트남 내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 및 근로자의 세금 납부 기한 및 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납부 기한 연장을 명시하는 개정 시행령 12/2023/ND-CP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러한 세금 기한 연장 적용을 받으려면 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extension)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목별 연장 및 감면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베트남 화학산업 주요 기업 동향

- 광물, 석유, 가스, 농업 등 다양 요소 다루는 관련 기업 1,800개 이상 존재
- 한국 기업과 비료, 고무, 황린 등 주요 원자재 공급처로 작용

베트남 정부는 화학 산업이 2030년까지 연 평균 10~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작년 1월 결정문 No.726/QD-TTg를 통해 베트남 화학 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나 화학 산업이 2040년까지 전체 산업 생산의 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기대했다. 세부적으로는 화학 산업을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204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했다. 해당 10개 분야는 '기초 화학, 석유화학, 산업용 고무, 제약관련 분야, 비료, 배터리, 식물보호화학, 산업용 가스, 페인트 및 인쇄 관련 잉크, 세제류' 에 해당한다. 베트남 정부는 각 분야의 성장률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화학 산업 기업 현황

화학 산업은 기술 발전과 관련된 모든 여타 산업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광물, 석유, 가스는 물론 산업 및 농업 폐기물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세부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은 국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베트남 화학 산업의 개발 전략은 10개의 대표 분야 중에서 비료, 석유화학, 기초 화학, 고무, 산업용 가스와 같은 주요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베트남에서 화학 산업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약 1,818개였다. 특히 비료 생산 기업이 894개(49%), 식물 보호 화학제품 생산 기업이 106개(6%), 석유 화학 제품 생산 기업이 14개(1%), 기초 화학 제품 생산 기업이 68개(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베트남 화학 산업 종사자는 약 270만 명이며, 이 중 72만 5천 명이 화학 및 화학제품 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수익 실현 이력

2022년 베트남의 주요화학 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 및 수출 시장 활용으로 급격한 이익 증가를 경험했다. 베트남 통계청(GS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화학물질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31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비료 부문에서는 수출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2% 이상 상승했다.

베트남 화학 그룹(Vietnam Chemical Group, VINACHEM)은 2022년 이익이 전년 대비 70%이상 증가하여 약 6조 동 이상(약 3,4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곧 2022년 VINACHEM의 이익이 매일 평균적으로 160억 동(약 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의 공개 된 이력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베트남 화학 산업 주요기업

베트남크레딧(VietnamCredit)가 집계 한 베트남 내 상위 3개 화학·화학제품기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위: 베트남 국영 화학 그룹(VINACHEM), 베트남 최대 화학 기업
- 2위: 득지앙 화학 그룹 주식회사(Duc Giang Chemicals Group JSC, DGC)
- 3위: 람타오 비료화학 주식회사(Lam Thao Fertilizers and Chemicals JSC, LAFCHEMCO)





요즘 뜨는 베트남 에듀테크 기업의 트렌드는?

-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해 외국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

베트남 에듀테크 산업의 현황

현재 베트남에는 300개가 넘는 에듀테크 관련 기업이 있으며, 사용자는 2백만 명, 시장 규모는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의 에듀테크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젊은 인구구조, 높은 경제 성장률,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교육비 지출의 증가세,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 등이다.

메인 플레이어는?

특히 2022년에는 베트남에서만 100개가 넘는 에듀테크 신생 스타트업이 생겨났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교육의 급격한 수요 증가 및 보급으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로컬 IT 기업도 이러한 시장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베트남 Viettel, FPT, VNPT 모두 각자의 이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기업 또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하노이 국립외대,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과 함께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사업을 벌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교육 스타트업 살랑코리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네이버는 베트남 최대 에듀테크 기업인 페니카 그룹과 교육용 솔루션을 웹 환경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에듀테크 산업 : 앞으로의 기회는?

정규 초중고 교육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학습 플랫폼이나 시험 준비를 위한 과정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미취학 아동을 위한 콘텐츠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영유아 콘텐츠 시장을 잡으면 평생 고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콘텐츠의 내용은 쌍방 소통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사전 녹화된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코로나19로 화상 회의실을 이용한 쌍방 소통형 강이가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때, 사전 녹화된 콘텐츠의 비율을 줄이고 실시간 대화식 수업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및 AI와의 접목이 필수적인 이유다.

B2B 시장의 접근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에듀테크 시장은 B2B 비즈니스가 먼저 성장을 주도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기관 등 이미 실체가 있는 기업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발주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무하다시피 했던 에듀테크 산업이 급부상하게 됐고, 분야도 B2C 영역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공교육 분야의 에듀테크의 접목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으며 사내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B2B 시장은 확장성이 다분하다. ELSA, Edupia 등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 B2B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철강재 세이프가드 일부 연장 부과 결정

- 합금 및 비합금강 봉강 제품 2018,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장 조치

베트남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빌릿 및 봉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2016년 3월 22일부터 부과 중(2968/QD-BCT)에 있으며 2020년 연장 조치(918/QD-BCT) 이후 일부 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 연장 조치(691/QD-BCT)를 2023년 3월 22일 자로 시행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4년까지만 허용되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4년을 추가해 8년까지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2년을 다시 추가해서 최대 10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결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일몰) 대상 품목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빌릿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는 철폐했다. 기존 조치에 포함됐던 철강 빌릿 제품은 HS Code 기준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72099, 72249000, 981100100이다. 베트남은 우대 세율 적용을 위해 관세율표에 9801~9845까지 HS Code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98110010의 경우 HS 코드 72249000에 해당해 재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연장 부과대상 품목

이번 조치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되는 품목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 봉강 제품(코일 및 바 포함)으로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은 HS Code 기준 72131010, 72131090, 72139120, 72142031, 72142041, 72279010, 72279090, 72283010, 981100100이다. 베트남은 우대 세율 적용을 위해 관세율표에 9801~9845까지 HS Code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98110010의 경우 HS Code 72279010에 해당해 재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시사점

반덤핑관세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 조치인 반면에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임에도 국내산업의 피해나 피해의 우려를 이유로 취하는 조치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국이나 제조사, 수출업자에 따라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이 되는 HS Code 기준 제품의 출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치이다. 베트남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수출 전 해당 제품이 세이프가드 연장 대상에 해당 여부 및 사전 면제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빌릿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됐으나 베트남의 빌릿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베트남 철강 메이커가 이미 내수와 수출을 모두 커버 가능한 압연 설비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관세 취소가 베트남 바이어의 구매패턴을 바꿀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기고] 베트남 경제 및 증시 전망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트남법인 윤항진 대표

I. 글로벌 경제 상황의 요약

2020년 초 코로나 발생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팬데믹이 일단락되고 현재는 그 수습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3단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글로벌 경제 활동 위축 → 기업 활동 부진 → 금융지원(=금리인하 + 자금공급 = 채권인수)
2단계	시장 유동성 확대 → 물가상승
3단계	금리 인상(물가상승 억제목표) + 자금회수(채권매각) → 시장 유동성 축소

1.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이슈

1) GDP 성장률

COVID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02%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2021년 2%대로 하락했습니다. 베트남은 팬데믹 기간 중에서 역성장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엔 GDP 성장률이 8.0%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3.32%를 기록했는데 기대보다 다소 낮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저효과(Base Effect)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 GDP 성장률이 2021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크게 높아진 것과 반대 현상입니다. 둘째, GDP에 36%를 차지하는 산업 및 건설의 부진입니다. 2022년 4월 'Van Thinh Phat' 그룹 관련 회사채 사기 발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사채 발행 조건을 강화한 'Decree 65'가 발표되고 사실상 회사채 차환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산업 및 건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전체 GDP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FDI)

한국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면서 다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분기 FDI는 작년 동기 대비 -38.9% 감소했습니다. COVID 팬데믹으로 2017~2019년에 FDI가 부진했고 국경 봉쇄로 인력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FDI를 위한 사전조사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대규모 FDI의 경우 투자이전 사전조사 과정만 2~3년이 걸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이 같은 사전조사 활동 중단이 최근의 FDI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COVID 팬데믹, 글로벌 물류대란, 러-우크라 전쟁 등으로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쳐 체감물가는 더욱 높습니다. 유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교통 부문은 지난해 11월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식품과 외식 등은 12월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전기료 3% 인상의 여파도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고] 베트남 소송 및 중재 절차에서의 증거능력

법무법인 VCI Legal 오승목 변호사, 응웬 후이 호앙(Nguyen Huy Hoang) 수습변호사

베트남: 증거능력의 3원칙,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크게 증거의 객관성, 관련성, 적법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객관성이란, 사용하고자 하는 증거가 사실에 입각한 증거일 것임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증거의 관련성이란 사용,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다투고 있는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증거의 적법성은 제출되는 증거의 형식이나 획득 방법 등에 있어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3원칙을 살펴보면, 대륙법, 영미법 국가들이 채택 중인 증거능력과 관련한 주요 규정이 베트남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전언 증거(hearsay)의 배제 원칙 역시 베트남에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미비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트남은 증거능력과 관련한 세부 법률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원이나 중재 판정부가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하거나 혹은 배제하여야 하는 증거에 대한 자세한 법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증거의 3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는 어떠한 증거 자료라도 법원 또는 중재 판정부에 임의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중재 판 정부가 최종 판결을 내림에 있어 증거의 3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미비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본 자료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채택되는 경우를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베트남 법률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베트남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해 보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해진 절차의 중대한 하자보다는 그 불법 증거가 담고 있는 실체적 진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판사와 중재인을 빈번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은 불법이지만 이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증거를 사용하여 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와 관련하여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전자 정보의 불법적 수집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로 인해 전자 정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위조 또는 변조될 수도 있습니다.





[기고] 베트남 IT 생태계와 아웃소싱 현주소

Megazone 베트남 김도연 사업총괄이사



베트남은 비용, 기술 능력 등 다양한 지표로 순위가 매겨지는 IT 아웃소싱 경쟁력 순위 전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개발 아웃소싱 고객은 일본, 유럽, 미국, 한국 등이다. 국내 삼성과 LG 등도 글로벌 개발센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으며 한국의 여러 기업이 베트남에 개발 센터를 직접 설립하거나 개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베트남은 2021년 3월 삼성전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R&D센터(SVMC)를 하노이에 설립했다. 또한 2022년 말까지 3000명의 개발자를 고용해 AI, IoT, Big Data, 5G 등 첨단기술을 베트남에서 아웃소싱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 내 한국 IT 기업 및 개발센터

대부분의 한국 IT 회사들은 하노이와 호치민에 위치하고 있다. 하노이에 위치한 기업들은 북부 공장 중심으로 제조(자동차, 전장, 가전,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등), 건설이 주요 사업이며 베트남 남부는 금융, 핀테크, 마케팅, 세일즈, 부동산, 유통 등의 서비스업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 과거에 베트남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으로 무장한 베트남 노동자들이 전 세계 봉제산업을 주름잡았다면, 2020년 전후로 스마트폰과 외국어에 능숙한 베트남 MZ세대들은 일명 '코딩 공장'으로 불리는 글로벌 IT 아웃소싱을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 IT 인력 채용 포털인 TopDev에 따르면 베트남엔 올해 40만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지만 10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개발자 수요가 50만 명으로 늘어나고 부족 인력도 19만 명으로 급증한다.

베트남 정부도 '메이크인 베트남(Make in Vietnam)'이라는 4차 산업혁명 양성 슬로건을 강조한다. 이는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베트남의 소프트파워를 의미하며, 전통 제조업을 뜻하는 '메이드인 베트남(Made in Vietnam)'과 구별된다. 지난해 베트남 ICT 산업은 전년 대비 28% 성장했고 총 1만3000개의 디지털 기업이 신설됐다.

2019년 베트남 ICT 종사자는 103만 명으로 전체 산업 인구의 1.9%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나 된다. ICT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베트남 평균의 7.6배, 농림 수산업의 18.7배에 이른다. 아직까지 베트남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다. 그러나 베트남 대기업 Vin Group이 건설산업 외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휴대폰 사업('21.5월부터 철수)까지 손을 대면서 IT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는 베트남의 새로운 산업이 됐다.

마치면서

베트남 이커머스의 급격한 증가와 팬데믹을 걸쳐 더 대중화된 IT 비대면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에 베트남의 IT를 주도했던 사업이 브로드밴드 인터넷, 5G 네트워크였다면 2023년은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CJ CGV,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달성

CJ CGV는 올해 1분기 매출액 591억 원(4,480만 달러), 영업이익 93억 원을 달성해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1억 원 증가함.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었던 21억원을 뛰어넘는 수치임. 베트남 외에는 터키에서 영업이익 5,000만원을 기록함. 기대작 다수 개봉, 영화경기 회복, 현지 영화계와 프로젝트 진행 등 2분기에 도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됨. 한편 CJ CGV는 2011년에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내 83개 영화관 및 483개의 스크린을 보유하는 등 시장 점유율 51%를 차지함.

[VN Express, 5. 24]

▶ 인도계 렌터카 서비스 줌카(ZoomCar), 베트남에서 철수

인도계 렌터카 서비스 줌카(ZoomCar)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사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이용자 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힘. 줌카는 2013년 인도에서 출시된 플랫폼으로, 2022년 베트남 호치민시 진출 후 1년간 운영되어 옴. 베트남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고려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임. 플랫폼 이용자는 자동차 소유주와 임차인을 연결해주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높은 수수료율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수수료는 회당 최대 40%를 징수하는 등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알려짐.

[VN Express, 5. 24]

▶ 운송 플랫폼 비(Be), GSM과 협력하여 비빈패스트(beVinFast) 서비스 론칭

전기택시 운송 기업 GSM은 운송 플랫폼 비(Be)와 협력 계약을 체결함. 기존 비카(beCar) 및 비택시(beTaxi)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 외에 비빈패스트(beVinFast) 옵션을 추가하였으며, Be 플랫폼에서 비빈패스트 기능 활성화를 통해 GSM 전기 택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음. 한편, 비 그룹은 전기 자동차 운행을 통한 대기질 개선, 소음 공해 감소 등 합리적 비용에 친환경 트렌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기 자동차 전환을 통한 운송산업 녹색혁명을 추진하고 있음.

[VN Express, 5. 23]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전기 절약 촉구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5~7월 기온 상승 시 전력 시스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구체적으로 북부 지역 전력망은 약 1,600~4,900MW의 전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힘. 지난 5월 19일 베트남 전국 전력망 부하량은 9억 2,400만 kWh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높은 수준임. 당 황 안(Dang Hoang An) 산업무역부 차관은 전력 생산 및 공급량 증가 이외에도 전기의 경제적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산업무역부 역시 향후 2년간 전력망 내 전력 손실을 6% 미만으로 감소, 2025년까지 부하 조정(DR)을 통한 시스템 최대용량을 최소 1,500MW로 감소하는 등의 노력할 예정이라 밝힘.

[VN Express, 5. 22]



▶ 베트남,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철수에 우려 표명

베트남 정부는 2022년 경제 성과와 2023년 사회경제 성장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서에서 높은 금리로 인한 대출 접근성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2023년 4개월 간 신규등록한 기업 수는 약 78,900개로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함. 또한, 4개월간 폐업기업은 약 77,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5.1% 증가함.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베트남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주문 수의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출 금리 급등에 따라 기업들이 시장에서 대량으로 이탈 할 수 있다고 밝힘. 베트남의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이 3.32%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정한 GDP 목표치인 4.5%를 크게 밑돌았음.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통제, 금융 시스템의 적응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또한, 정부는 투입 비용 절감, 생산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기업과 주민 지원에 집중키로 함.

[Tuoi Tre, 5. 19]

▶ 재무부, 가당 음료 특별소비세 부과 검토 유지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음료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재무부는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를 검토 중에 있음. 아직 정확한 세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은 음료, 차, 커피,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등이 있음. 업계관계자들은 올해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비만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관련 산업만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베트남 보건부는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당음료의 소비억제를 위해 특소세를 부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반대 주장을 일축함.

[VN Express, 5. 16]

▶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VIII) 총리 승인

베트남 총리는 2023년 5월 15일 '2050년 국가 비전 및 2021~2023년 전력 개발 계획(Power Development Plan 8)에 관한 결정문 Decision No. 500/QD-TTg을 공식 승인함. 이 계획은 국내 전력 수요 충족, 연평균 GDP 성장률 2021~2030년 7%, 2031~2050년 6.5~7.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보장, 사회경제적 발전 및 산업화·현대화 요구 사항 충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또한 2030년까지 전력 공급 안정성 아세안(ASEAN) 상위 4개국 및 전력 접근성 지수 상위 3개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2030년까지 사무용 건물의 50%와 주거용 주택의 50%는 자가 생산 소비형 옥상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예정임. PDP8은 발전용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은 최대 67.5~71.5%으로 설정, 발전 과정 내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억 400만~2억 5,400만 톤, 2050년까지 2,700~3,100만 톤으로 절감할 계획임. PDP8 기간 중 전력 및 송전망 개발을 위한 총투자 자본은 1,3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MOIT Portal, 5. 15]



▶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Hai Phong) 내 비관세구역 착공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인 하이퐁 내 당부-갓하이(Dinh Vu-Cat Hai) 경제구역에 락휘엔(Lach Huyen) 비관세구역을 착공함. 착공식은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및 쉐언꺼우-락휘엔 투자합작회사(Xuan Cau-Lac Huyen Investment JSC)에서 주관함. 당부-갓하이 경제구역 내 752헥타르 규모로 건설 예정이며, 베트남 국내 최대 비관세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장 및 락휘엔 항구 내 밸류체인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Tuoi Tre, 5. 13]

▶ 애플(Apple), 베트남 첫 온라인 애플스토어 운영

애플(Apple)은 5월 18일부터 베트남 최초 온라인 애플스토어를 운영함. 이는 인도 최초 오프라인 애플스토어 개장 직후 시점으로, 중국 시장 판매 둔화 속 신흥국 시장 공략을 주요 목적으로 함. 특히 베트남은 젊은 인구 구성과 비교적 낮은 시장 점유율 등의 베트남 국내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다만 베트남 국내 오프라인 매장 계획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며, 현재 공식 인증 협력사 및 공급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 중임.

[Vietnam Plus, 5. 12]

▶ 호치민시, 9월 녹색성장 경제포럼 개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포럼(HEF)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센터(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대표, 외교 및 영사 대표, 국내외 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해당 포럼에서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색 성장, 특히 호치민시에 적용가능한 모델과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정됨. 호치민시 외무부에 따르면 포럼 이전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며, 호치민시의 녹색 성장 이외의 경제 발전 및 산재된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임.

[Vietnam Plus, 5. 11]

▶ 베트남 최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4월 한달 간 약 26만 명 방문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베트남 최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으로 약 26만 명 방문하였음. 이는 3월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며, 동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1/4를 차지함. 중국, 대만, 미국, 태국, 일본 등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3을 차지하였음. 한편 뉴질랜드, 중국, 캄보디아는 지난 3월 베트남 관광객이 각 67%, 61%, 56% 급증하며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음.

[Saigon Times, 5. 9]



▶ HSBC,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5.2% 전망

베트남의 2023년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였으며, 4월 수출 실적 또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하여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관광산업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은 전월 대비 70% 증가한 데 힘입어 4월 국제 관광객이 100만 명에 육박한 반면, 은행산업의 경우 올해 1분기 성장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2분기에는 무역 흐름이 반전되어 경제성장률 5.2%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Vietnam Plus, 5. 8]

▶ 베트남, 5월 4일부터 전기세 3% 인상

지난 4년간 변동이 없었던 베트남 전기 값은 5월 4일부터 kWh(킬로와트시) 당 약 0.082 달러(1,920 베트남 동) 상승하였음. 베트남전력공사(EVN)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서명한 결정에 따르면, 전기 평균 판매 가격은 기존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kWh 당 약 0.080 달러(1,864.44 베트남 동)에서 약 0.082 달러(1,920.37 베트남 동)로 인상된 가격임. 동 결정은 정부와 산업무역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전기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군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평가되었다고 강조함.

[Vietnam Plus, 5. 4]

▶ 베트남, 부가가치세 2% 인하 제안 승인

베트남 정부는 기업과 가계가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연내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2%p 인하한 8% 제안을 승인함. 지난 5월 2일 레 문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작성 요청을 승인하는 정부 결의안에 서명함. 이번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은 지역 소비와 기업 생산 촉진 활성화가 예상됨. 재정부는 2023년 1~3월까지 국가 예산 수입이 소폭 감소했으며, 수출입 활동으로 인한 세금 수입도 전년대비 16% 이상 감소했다고 밝힘. 부가세 인하가 시행될 경우 하반기 6개월동안 세수감소가 매월 5조 8,000억 동(약 2억 4,670만 달러), 총 35조 동(약 14억 8,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상의 내수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약 35개 항목(발표 전)의 수수료 인하도 검토(7월~12월 시행 예상) 중에 있으며, 시행 시 세수감소가 약 7,000억 동(약 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Saigon Times, 5. 4]

▶ 베트남, 신규 기업 등록 사상 최고치...15,967개, 전년동기대비 6.4%증가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신규 기업 등록 수는 15,96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수치이지만, 등록 자본은 5.7% 감소한 약 154조 6,000억 동(약 66억 달러)에 그쳤음. 베트남의 남동부, 중부, 홍강 삼각주, 북부 등 전국적으로 4~6개의 주요 경제 활성지역에 신규 등록 기업이 증가세를 보임. 신규 기업에 등록된 직원은 119,089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수치임. 2023년 4월까지 78,871개의 기업이 등록했으며, 그중 신규 등록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49,872개를 기록함.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베트남 경제의 성장, 기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여 2023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폐업한 기업수는 14,509개에 이르렀음.

[Vietnam Plus, 4. 29]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Construction investment of coastal road in Tra Vinh Province
 - Construction investment of coastal road routes connecting 03 provinces together : Soc Trang, Bac Lieu and Tra Vinh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Construction investment of coastal road in Tra Vinh Province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Ministry of Transpor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베트남 Tra Vinh 성 ○ 규모 : 약 38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Currently, the project is waiting for approval of investment proposal from government. It is expected to get approval in June, 2023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tal length of project: 62.7km with including 2.6km of Cung Hau Bridge connecting Tra Vinh to Ben Tre Province and over 57km passing through economic centers of province such as: Dinh An Economic Zone, Dinh An sea port, Duyen Hai commune, and Dai Ngai Bridge. - The beginning point is at Cung Hau Bridge, in Long Hoa Commune, Chau Thanh Dist. and the ending point is at Duyen Hai commune and Tieu Can Dist. - Vtk=80km/h - Width of road: 12m - Scale of lanes: 04 lanes - The loans agreement is expected to sign in September, 2024.



(입찰정보)

□ Construction investment of coastal road routes connecting 03 provinces together : Soc Trang, Bac Lieu and Tra Vinh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Ministry of Transpor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베트남 Soc Trang, Bac Lieu, Tra Vinh 성 ○ 규모 : 약 257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Currently, the project is waiting for approval of investment proposal from government. It is expected to get approval in June, 2023 ○ 세부내용 The project is included 03 sections: + Section 1: total length of 53.5km of coastal road connecting to Bac Lieu Province, width of road: 12m, Vtk=80km/h. + Section 2: total length of 18.6km, width of road: 9m, Vtk=60km/h. This section will be phase 2 of Soc Trang’s East-West economic development axis road. + Section 3: total length of 13km, width of road: 12m, Vtk=80km/h, this section is the connecting route to Dai Ngai Bridge. Once completion, the project will help preventing salinity and high tide intrusion, and bolster connection among localities in the region.

<끝>



Meet Korea 2023 박닌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베트남 외교부와 공동으로 2023.5.17(수)-18(목) 양일간 박닌성에서 Meet Korea 2023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실행기관은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에서 맡았다. 2020년 최초 개최 이후 총 4회째를 맡는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북부 핵심 경제지역을 포함한 총 10여 개 지방성·시* 대표 및 무역투자관계자들과 110여 개의 우리 기업과 베트남 기업 등 총 5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 하노이시, 빈푹성, 박닌성, 하이퐁시, 꽝닌성, 하이즈엉성, 흥옌성, 박장성, 타이응웬성, 푸토성

이번 행사는 양국 기업, 베트남 지방성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각급에서 내실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7일 박닌성과의 사전행사 와 △18일 오전 부대행사(G2B 네트워킹, B2B 네트워킹, 산업단지 시찰) △기업 참여 부스 전시와 △18일 오후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8일 오후에 진행된 본행사에서 오영주 주베트남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Meet Korea가 회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양국 기업들과 베트남 지방성간의 정례화된 만남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금번 행사는 양국이 작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새로운 관계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양국 기업인들과 지방성 관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새 옷을 입고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본 행사에 참석한 응우옌 밍 부(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은 축사를 통해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들의 애로에 귀 기울이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베트남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 자체에 방점을 두었던 반면, 앞으로는 상호 발전하고 서로 이익을 창출해내며, 사회, 노동력, 환경 등 분야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는 방식으로 한국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디지털 전환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베트남이 역내 공급망의 중심지가 되는 데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우옌 흥 장(Nguyen Hung Giang) 박닌성 인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박닌성은 한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이어 왔으면서 현재는 한국이 박닌성에 대해 투자한 국가 중 1위이며 박닌성에서 유치한 총 FDI의 60%를 한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하이테크와 녹색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본 행사 / 제1세션) Meet Korea 2023 본행사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양국의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방안을 주제로 박닌성, 하이즈엉성, 푸토성, 광닌성, 빈푹성 총 5개 지방성·시에서 대표적인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제공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였다. 한국 측은 KOTRA, KOCHAM 등에서 글로벌 경제 및 투자 환경을 평가하고 한·베 제조업 협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베트남 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본 행사 / 제2세션) 특히 제2세션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양국의 관계에 걸맞게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KOICA, LH에서는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와 ODA 협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박장성과 하이퐁시 등에서도 녹색성장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제1세션(왼) 및 제2세션(오) 사진

(사전행사) 한편, 이번 행사는 5월 17일 이번 행사를 개최한 박닌성을 대상으로 사전행사인 Meet Bac Ninh – Korea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동 행사에는 60여 개사 이상의 양국 기업을 포함한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박닌성의 투자환경 전반, 진출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및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G2B 네트워킹) 아울러 18일 오전에는 부대행사로 지방성. 시별 베퉁 관계자들과 우리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G2B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하노이시, 타이응웬성, 흥옌성, 박닌성, 박장성, 빈푹성, 하이퐁시, 쩡닌성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별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구체 추진사업 및 우리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 이후에도 필요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VTV1 채널 뉴스(시사 코너) 방영 캡처화면

(산업단지 시찰) 아울러 18일 오전에는 현장 시찰 프로그램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동 시찰에는 한국기업 20여 개사를 포함한 약 60명이 참석하여, 삼성전자, 효성 등이 입주한 옌퐁(Yen Phong)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박닌성 측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실시하였다.



옌퐁산업단지 비글라세라 사무소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제는 공급망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최분도 회장 인터뷰



신임 중남부 코참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코참 회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4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호치민 등 중남부 쪽에 많이 진출해 있고 해당 지역에는 약 3,500개의 우리 기업이 있으며 코참 회원사 기준으로는 약 1,00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법 문제, 소방법 문제, 부가세 환급 문제 등 우리 기업이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특히 동나이 지역의 직원 기숙사 문제가 새로운 이슈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대정부로 제안하는 데에 있어 코참 회장으로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전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하나 대개는 지방성시에서 해결하기가 힘든 중앙정부 관할의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코참 회장으로서 중앙정부를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회원사 방문 관련입니다. 현재 매주 금요일마다 4~5개의 기업 방문을 하여 현재까지 약 60개사 이상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그간 중소기업들이 다소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안·건의사항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고, 자책을 하고 계시거나 자포자기 상태인 기업들의 이야기도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참이 더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 많이 꺼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코참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방문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제 임기 동안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고, 저 또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제품들이 어디로 판매되고 있고, 판매되는 데서 어떻게 컬래버레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으니 제가 이후에 다른 업체 갔을 때도 그 회사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코참에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회사 연혁, 주요 제품, 주거래 대상 등을 포함한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나중에는 우리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참은 베트남 정부와 우리 기업 간 가교 역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 정부와는 협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있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코참은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협업하여 남부 쪽 5개성시(호치민시, 롱안성, 동나이성, 빈증성, 바리아붕 따우성) 지도자들과 한국기업 간 대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경우 재작년, 작년 총 2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동나이, 롱안, 붕따우, 빈증의 경우에도 각 성 인민위원회 주요 관계자와 한국기업 간 대화 행사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행사가 개최되면 기업들이 직접 그 지역 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각 국의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번 행사들을 통해서 포인트 to 포인트로 해결이 된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삼일 제약 건, 롯데 투티엠 신도시 건, 그리고 대한항공 정비사 노동조합증 이슈 등의 문제 해결 사례가 기억납니다. 이런데 있어 중소기업과 스킨십이 많은 저희 코참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되기에 롱안과 같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을 특히 더 열심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성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애로사항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인력 수급이 문제이지만 부가세 환급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인력 수급은 잘 되고 있는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는 지역 대표자들과 성 정부 지도자들 간의 대화 행사를 통해서 지역별 이슈사항들을 평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회째 개최인만큼 새로운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 행사에서 제기된 사항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도 남아있어 코참 사무국에서는 현재 확인 작업중에 있습니다. 빨리 매듭 지어져야 애로사항을 제기했던 업체들도 실효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베트남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경제 상황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최근 기업방문을 다니다 보니 특히 섬유·의류, 가방, 신발 쪽 봉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재고량이 많아서 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사태 관련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은 일시적이고, 시일이 지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류 봉제나 신발 산업 경우 공급망 체인 관리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때 베트남이 강도 높은 지역 봉쇄를 조치하였고, 록다운 조치 속에서 대형 바이어들은 베트남이 믿을 수 있는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향후 이러한 불투명한 정책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을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타 국가로 분산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산된 것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복귀할 만한 이유를 찾았느냐입니다. 가격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잘 맞추어도 다시 돌아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현재 베트남은 제조업에 대한 소재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때도 언급하고 며칠 전 Thanh Nhien(청년) 신문사 인터뷰 시에도 같은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만 우선 베트남 FTA 문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관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의 충분한 가공 정도 및 FTA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의 역내 발생 부가가치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베트남 생산 시 사용되는 부품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다 보니 부가가치 기준 달성을 못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니 원산지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베트남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하이테크, 벤처, 바이오 산업 유치를 희망하지만 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베트남 경제 여건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산업이 활성화 되어 제조업체의 생태계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에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또는 인민들의 근면성이나 총명성 등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아주 세밀한 중장기 계획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백에 철제 메탈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메탈 부품의 부착 방식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원청에 제안을 하니 활용도가 높아진 것 입니다. 향후 부품 개발에 대한 디자인 제안까지 받게 되는 케이스를 본 적 있는데, 원청으로부터 받는 오더에서 더 나아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한다면 결속력 또한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R&D 연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개 다른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통일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기업들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부하고 또 그에 맞는 대응책들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정리하자면, 단순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가 변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래 코참에 많이 접수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노동허가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정책적인 계획과 맞물릴 수 있는 얘기인데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노동허가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베트남 정부에서는 베트남인 대상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달라고 하지만, 이 문제를 기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고용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이익 창출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방법 문제입니다. 개정 소방법으로 인해 공장 내 소방 설비들을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작성된 조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애로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아마 각 담당 지도부와의 대화가 시작되면 가장 큰 관심 사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가세 환급 문제입니다. 특히 동나이성의 경우 예전에는 쉽게 나오던 부가세 환급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사용 문제입니다. 현재는 동나이성에 한해 발생한 문제이지만 향후 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예전엔 기숙사가 건축법상 명목으로 명기 되어있지 않았기에 기숙사 등록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편의시설 용으로 건물 등록이 되었고, 거기에 한국 직원들이 기숙을 해왔습니다. 독신 주재원들이 주소 등록, 거주증 명목도 해당 주소로 신청하였지만 동나이성에서는 등록 상 기숙사가 아닌 시설에 대해 주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증을 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거주 자체 또한 불가하니 동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단지 몇 개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내 모든 기업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한 일인 겁니다. <끝>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bhsjun@jplawvn.com | (84-24) 3724 5201~3

1. 들어가며

코로나 종식 이후 베트남의 소비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요식업을 중심으로 카페, 음식점, 버블티를 비롯한 여러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이 부흥하고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프랜차이즈는 본점의 운영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가맹점과 공유하고, 이의 지식 재산권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표권, 사업 노하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광고 등을 본사가 집행하고 가맹점주들과 그 이익을 공유하며,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노하우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에서는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디자인, 직업 교육, 메뉴개발, 레시피, 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의 이러한 패키지를 이용하여 개별 사업을 진행하되, 프랜차이즈 규정에 맞추어 가맹점을 운영하고 그 수수료를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스타벅스, 하이랜드 커피 등을 비롯한 다양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그 예시라 할 것입니다.

3.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식업을 예시로 말씀드렸습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요식업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센터,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프랜차이즈 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법인을 설립 하셔야 합니다. 즉, 가맹본부의 설립이 필요하며, 가맹본부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계획하시는 투자자이시라면 요식업 법인을 설립 하시고 운영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식업의 경우를 예로 안내 드리면, 요식업 투자에 관한 투자프로젝트 승인,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운영에 앞서 식품안전허가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주류 취급 허가증 등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상표권 등록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맹본부의 설립 이후 베트남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관련 규정들에서는 가맹본부의 1년 영업 경력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운영 이후 프랜차이즈 계약서 및 프랜차이즈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준비하신 뒤, 프랜차이즈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며, 각 시성의 산업통상국에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프랜차이즈 등록 및 승인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국의 프랜차이즈 등록 및 승인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통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개시가 가능합니다. <끝>



중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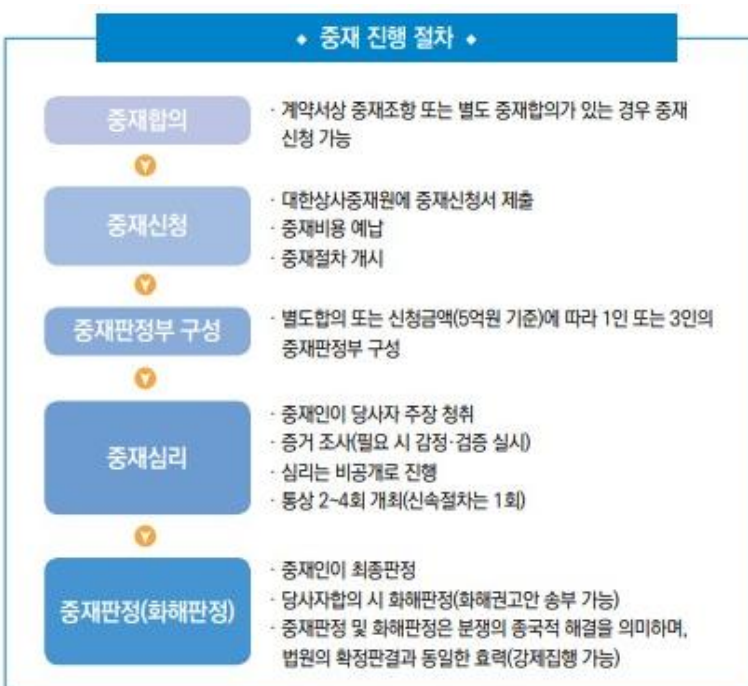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 유하영 소장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12월 하노이 사무소를 개소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체적분쟁해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중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중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 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하나의 조항으로 합의조항이 없더라도, 분쟁이 발생한 후에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중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중재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중재인 후보 명단을 전달하고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합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 받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면 중재절차가 완성됩니다.



Q. 중재신청을 할 때 중재비용은 누가 예납합니까?

국내중재의 경우 중재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반분하여 예납합니다.

Q. 중재비용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중재비용이 결정되며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및 중재인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재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재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까?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다툼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중재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내중재 신청시, 신청금액 1억원 이하 사건(별도합의 가능), 그리고 국내중재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사건은 간소화 된 신속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중재는 1회 구술심리가 원칙이고 별도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 중에서 중재인 1인을 선정합니다. 국제중재의 경우 1회 구술심리가 원칙이나 5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제중재 역시 국내중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을 선정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재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여러 고민에 휩싸일 때, 해결방안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22일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활발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kcab.or.kr/>

<끝>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베트남 신규 발효 예정 FTA하이퐁 신규 비관세구역 착공 >

하이퐁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관세 구역 착공을 시작하였다. 하이퐁 인민위원회 및 쑤언꺼우-락휘엔 투자 합작회사(Xuan cau-Lac huyen Investment JSC)에서 주관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 1일자로 총리의 승인을 받은 약 11조VND 수준의 프로젝트로, 약 752헥타르 규모의 Xuan Cau 산업 단지 및 비관세 구역 건설을 목표로 한다.

당부-깃하이 경제 구역 내 락휘엔 항구 인근에서 착공되는 해당 프로젝트는 락휘엔 항구 내 밸류체인 구성 및 북부 해안지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 산업 및 중개 무역 활성화 기여 및 FDI 투자 유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ao tuoi tre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폐기물 수입 절차 및 대상 물품 리스트 >

Q. 베트남으로 폐기물 수출이 가능한가요?

A. 베트남은 관련 법령으로 중고 물품 및 폐기물 수입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법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의 경우, 환경 기술 규정 충족이 필요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 리스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베트남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수입자는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서의 폐기물 수입만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1) 환경 허가를 취득한 자
- 2)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기술 및 시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창고를 갖고 있어야 하며, 수입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처리가 가능할 것
- 3) 수입 금액에 따른 환경 보호 보증금 납부
- 4) 요건 미충족 시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재수출 및 처리를 약속하는 서면 약속서 제시

최근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수입 가능한 폐기물 리스트를 규정하는 총리령의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 총리령 13/2023/QĐ-TTg가 2023년 6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수입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로 철강, 플라스틱, 종이, 유리, 구리,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망간 폐기물의 일부 HS code가 해당 총리령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2618호의 철강 제조시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슬래그 샌드) 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618호의 물품은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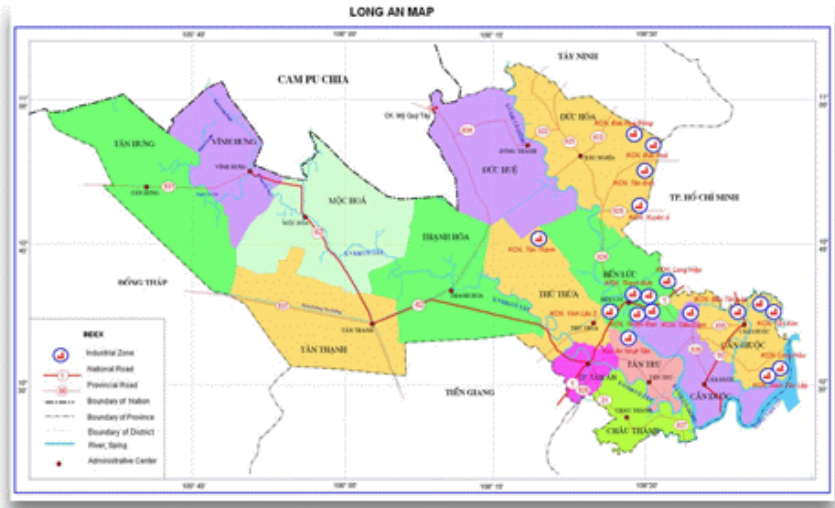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 롱안성

□ 롱안(Long An)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4,491.37km² ▪ 인구: 2,003,000명 도시거주 비율: 16.1%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롱안성은 메콩 삼각주 지역에 있는 성이며, 북쪽으로는 캄보디아, 동쪽으로는 떠이닝(Tay Ninh)성 및 호치민시, 남쪽으로는 띠엔장(Tien Giang)성, 서쪽으로는 동탑(Dong Thap)성과 인접해 있음 길이 133km의 국경을 가진 롱안성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1번, 50번, 62번 국도, N1 국도, N2 국도, 호치민-퐁르엉(Trung Luong) 고속도로 등 수로: 밤꺼동(Vam Co Dong) 강, 밤꺼떠이(Vam Co Tay) 강, 꺾주역(Can Giuoc) 강, 벤룩(Ben Luc) 강, 즈엉반즈엉(Duong Van Duong) 운하 등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3.46% 성 1인당 GDP: US 3,838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67억 달러 / 총 수입액: US 51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0.86%), 서비스업(9.95%), 농수산업(0.71%)
산업구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50.7%, 서비스업 27.34%, 농수산업: 16.09%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51.2% 노동가능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73.35%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32.07%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안(Tan An)시, 득호아(Duc Hoa) 현, 벤룩 현, 투투아(Thu Thua) 현, 꺾드역(Can Duoc) 현, 꺾주역 현: VND4,160,000 = US180 달러(2급지) 끼엔뜨엉(Kien Tuong) 군, 득후에(Duc Hue) 현, 자우타잉(Chau Thanh) 현, 판주(Tan Tru) 현, 타잉화(Thanh Hoa) 현: VND3,640,000 = US158 달러(3급지) 지역: VND3,250,000= US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롱안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854개 프로젝트, 57.6억 달러 (한국) 빈롱성 내 한국투자는 총 144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8.07억 달러 규모. 롱안성에 투자한 40개 국가 중 투자건수 기준으로 2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4위



□ 투자환경



롱안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 시스템

롱안성은 메콩 삼각주와 남부 주요 경제 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호치민시와 인접해 있고 캄보디아와 133km의 국경을 공유함. 롱안성은 상품 무역 및 투자 유치의 중요한 교차로로 평가됨.

- **(도로)** 1번, 50번, 62번 국도, N1 국도, N2 국도, 호치민-중르엉 고속도로(북-남 고속도로)는 롱안성을 관통함. 롱안성은 교통 인프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투자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2020-2025년 기간에 3개의 핵심 교통 프로젝트* 등의 14개의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①판안시 외곽 순환도로 프로젝트, ②827E 성도로: 호치민시-롱안- 띠엔장(Tien Giang) 연결 노선(PPP 투자 예상), ③830E 성도로: 성의 4개현(벤룩, 득호아, 깐주억, 깐드억)이 롱안 국제 항구와 연결

롱안성은 성 내 교통 시스템 외에도 2022년 초 호치민시, 띠엔장성, 동탑성과 연결하는 교통 프로젝트를 준비한 바 있음. 그 중, 호치민시와 연결되는 제3, 4 순환도로, 북-남 고속도로의 구간인 벤룩-롱타잉 고속도로, 호치민 로드 구간인 쩐타잉-득호아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고 있음. 신규 도로의 형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 및 주거 밀집 지역 개발로 이어짐.

- **(수로)** 롱안성의 지형은 총 길이가 8,912km로 강과 운하로 얽혀져 있음(밤꺼동 강, 밤꺼떠이 강[밤꺼강의 두 지류], 꺾주억 강, 벤룩 강, 즈엉반즈엉 운하 등). 느억만(Nuoc Man) 운하, 꺾주억 강, 밤꺼동 강을 통해 호치민시-끼엔르엉(Kien Luong), 호치민시-까마우, 호치민시-떠이닝을 관통함. 프억쑤옌(Phuoc Xuyen) 운하, 즈엉반즈엉 운하, 벤룩 강, 꺾주억 강, 투투아 운하를 통해 100톤 이상의 수상 운송 또한 서남부에서 호치민시까지 갈 수 있음. 싸이랍(Soai Rap) 하구가 동해를 향해있어 롱안성은 추후 산업, 운송 서비스, 수출입 부문 개발 가능성이 높음.



○ 공단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동력

-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전체 성내에 총 12,285.48ha의 3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중, 총 11,944.98ha의 35개의 공단 및 롱안 경제구역 안에서의 총 340.5ha의 2개 공단은 총리가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추가하였음.
- (산업단지 조성 현황) 현지까지 롱안성은 총 10,173.77ha 면적으로 투자 가이드라인을 승인 받았거나 투자 인증서를 받은 32개의 공단을 조성하였음.
 - 토지면적 4,278ha의 24개 공단은 투자를 유치 가능 수준의 상태이며, 입주율은 63.92%임
 - 계획면적 약 2,484.5ha의 8개 공단은 투자 가이드라인을 승인 받아 관련 투자 절차, 부지 정리, 인프라 개발 등을 진행 중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경제구역, 하이테크 구역 안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징수에 대한 제35/2017/ND-CP(2017.04.03)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구분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산업 단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득후에(Duc Hue) 현, 목호아(Moc Hoa) 현, 빈흥(Vinh Hung) 현, 탄흥(Tan Hung)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우대 분야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외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끼엔뜨엉(Kien Tuong) 군, 탄타잉(Tan Thanh) 현, 득호아(Duc Hoa) 현, 타잉화(Thanh Hoa)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세율 20% • 첫 10년간 세율 17%(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외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
경제 구역	롱안 국경 관문 경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우대 분야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외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한 5년간 면세 등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FDI) (2021.12월말 기준)

총 854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57.6억 달러가 투자 등록됨

○ 한국계 투자 (2021.12월말 기준)

롱안성 한국투자는 144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8.07억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롱안성에 투자한 40개의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2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함

○ 롱안성 내 10대 한국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위치	투자금액 (US 달러)
1	Lotte F&G Vietnam	닭고기와 햄버거 필레(고기 패티) 가공 및 보존	롱하우(Long Hau) 공단	60백만
2	Magic Vina	전자 부품 제조, 공장 임대	확장 롱하우(Long Hau) 공단	55백만
3	Yujin Kreves	주방, 화장실, 매장용 금속기구 제조	호아빈(Hoa Binh) 공단	52.4백만
4	Songwol Vina Joint Stock Company	수건, 카페트, 담요, 마스크 등 생산	탄득(Tan Duc) 공단	44.5백만
5	Lotte Global Logistics Vietnam	물류 서비스	롱하우(Long Hau) 공단	32백만
6	AJ Total Vietnam	물류 서비스(냉장)	롱하우(Long Hau) 공단	31.5백만
7	Haram Corporation	전자 부품 제조, 공장 임대	확장 롱하우(Long Hau)공단	30백만
8	Samduk Vietnam	신발, 의류, 모자, 가방 생산	호아빈(Hoa Binh) 공단	29.8백만
9	Simone Accessories Collection Viet Nam Limited	가방 가공 및 생산	롱하우(Long Hau) 공단	29백만
10	Vina Pride Seafoods	수산물 생산, 가공 및 보존, 식품 도매	확장 롱하우(Long Hau)공단	24백만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입주율 & 투자·개발사
1	쑤엔아(Xuyen A)	2009	483	• 입주율: 91.7% • Ngoc Phong JSC (http://www.xuyenaip.com)
2	투투아(Thu Thua)	2019	188.88	• 입주율: 89.8% • Idtt JSC (http://idtt.com.vn)
3	International Truong Hai	2020	162.19	• 입주율: 85.83% • Truong Hai International Industrial Zone Co., Ltd
4	Prodezi	2022	400	• 입주율: 76.67% • Prodezi Long An JSC
5	벳팟(Viet Phat)	2020	1,214	• 입주율: (단계1) 45.26% / (단계2) 70.64% • Tizco JSC
6	확장 롱하우(Long Hau)	2016	90	• 입주율: 48.86% • Long Hau JSC (https://longhau.com.vn)
7	탄랍(Tan Lap)	2022	654	• 입주율: 48.49% • Long An Development Invest JSC
8	편아잉-판푸 (Tran Anh-Tan Phu)	2010	262	• 입주율: 34.09% • DNN - Tan Phu Invest JSC (https://congytrananh.vn)
9	득호아 III - 송판 (Duc Hoa III - Song Tan)	2008	244.63	• 입주율: 44.02% • Amic Investment JSC
10	확장 호아빈(Hoa Binh)	2020	49	• 입주율: 59.69% • Hoa Bin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vestment Corporation (https://hbip.vn)

□ 롱안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롱안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1. Mr. Nguyen Thanh Thanh (위원장) 2. Mr. Tran Thanh Tan (계획투자관리실)	• Tel: +84-913-763-855 (Mr. Thanh) +84-971-553-453 (Mr. Tan) • Email: thanhthanh@longan.gov.vn , tantt@longan.gov.vn • Website: http://ipinvietnam.vn

<끝>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3. 4. 20 기준 누계		2023. 1. 1 ~ 4.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631	81,469.65	121	179.04	575.00(-68.5)
싱가포르	3,218	73,043.92	104	1,520.13	2,195.18(-29.5)
일본	5,072	69,507.59	85	253.04	1,966.18(163.0)
대만	2,959	37,009.22	50	328.17	594.48(36.5)
홍콩	2,229	30,089.06	65	495.95	585.54(-1.7)
중국	3,687	24,056.18	117	526.19	751.64(-30.0)
버진아일랜드(영)	902	22,704.11	11	12.9	68.16(38.5)
네덜란드	424	14,086.41	9	185.47	568.20(-11.7)
태국	692	13,140.71	10	10.35	35.82(-76.0)
말레이시아	715	13,068.74	10	1.09	6.46(-6.6)
미국	1,250	11,642.66	31	18.15	271.97(60.5)
기타	6,286	56,056.42	137	575.26	1,259.79
합계	37,065	445,874.66	750	4,105.75	8,878.42(-17.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3. 4. 20 기준 누계		2023. 1. 1 ~ 4.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149	265,523.07	224	3,339.51	5,135.71(-17.0)
2	부동산 경영	1,093	67,002.19	18	386.28	971.94(-65.5)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0	38,320.66	6	7.35	21.20(-89.1)
4	호텔, 외식서비스	946	12,686.51	19	2.45	18.58(-14.6)
5	건설	1,799	11,095.21	13	59.06	120.90(-2.1)
6	도소매, 유지보수	6,363	10,504.43	204	92.99	371.67(-44.3)
7	물류운수	1,015	6,242.93	27	132.25	156.35(35.6)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249	5,164.47	114	49.21	354.20(-0.9)
9	정보통신	2,783	5,074.58	82	12.78	177.96(30.6)
10	채광	108	4,894.57	-	-	0.20(-98.9)
11	교육, 양성	647	4,595.90	19	4.94	9.34(-8.8)
12	농, 임, 수산	529	3,858.36	6	11.3	7.72(-54.4)
13	예술 오락	141	3,423.20	1	4.6	7.26(4,085.6)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3	3,042.47	-	-	0.004(-100.0)
15	의료와 사회복지	154	1,753.89	-	-	0.41(-84.3)
16	행정, 지원 서비스	573	1,036.84	11	2.38	12.74(16.4)
17	금융, 은행, 보험	90	920.77	5	0.61	1,511.48(1,107.4)
18	기타 서비스	146	723.55	1	0.04	0.75(-18.6)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7,065	445,874.66	750	4,105.75	8,878.42(-17.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20	2021	2022	2023.4(누계)
수 출	2,826.5	3,363.1	3,713	1,071.5
수 입	2,627	3,322.3	3,389	996
무역수지	199.5	40.8	324	75.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4(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183	57,537	57,994	17,273(-18.1)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44,576	50,828	55,536	16,028(-9.4)
기계/플랜트 및 부품	27,193	38,344	45,751	13,202(-4.8)
섬유/직물제품	29,809	32,753	37,566	9,720(-18.1)
신발류	16,791	17,751	23,895	6,181(-15.5)
원목 및 목제품	12,371	14,809	16,011	3,907(-30.6)
철강제품	5,258	11,795	7,993	2,522(-23.6)
수송수단 및 부품	9,090	10,616	11,988	4,327(12.3)
수산물	8,412	8,886	10,923	2,571(-29.3)
원사(Yarn)	3,736	5,612	4,713	1,297(-32.9)
기 타	74,235	87,379	98,934	30,130
합 계	282,654	336,310	371,304	107,158(-13.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4(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63,971	75,440	81,884	25,394(-14.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251	46,296	45,192	12,467(-13.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645	21,434	21,126	2,516(-66.0)
의류(원단)	11,875	14,324	14,706	4,133(-18.2)
플라스틱 원료	8,397	11,685	12,387	3,014(-32.8)
각종 철강	8,066	11,523	11,920	3,162(-24.5)
기타 비금속	6,052	8,611	9,253	2,556(-20.5)
플라스틱 제품	7,274	7,959	8,119	2,241(-15.3)
화학제품	5,741	7,627	9,144	2,383(-20.6)
화학물질	5,016	7,735	8,747	2,486(-24.0)
기 타	92,412	119,600	136,423	39,250
합 계	262,700	332,234	358,901	99,602(-17.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4(누계)
1	미국	61,347	77,077	96,293	109,388	28,643
2	중국	41,414	48,905	56,009	57,702	15,495
3	한국	19,720	19,107	21,945	24,293	7,575
4	일본	20,413	19,284	20,128	24,232	7,329
5	홍콩	7,156	10,437	11,996	10,936	2,710
6	네덜란드	6,881	6,999	7,686	10,430	3,154
7	독일	6,555	6,644	7,286	8,968	2,510
8	인도	6,674	5,235	6,259	7,961	2,696
9	태국	5,272	4,917	6,161	7,476	2,401
10	영국	5,758	4,955	5,765	6,065	1,899
	기타	82,999	79,094	96,782	103,853	32,746
	합계	264,189	282,654	336,310	371,304	107,15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4(누계)
1	중국	75,452	84,187	109,874	117,866	32,363
2	한국	46,935	46,895	56,155	62,088	16,054
3	대만	15,173	16,701	20,772	22,631	5,938
4	일본	19,526	20,341	22,648	23,373	6,958
5	미국	14,365	13,713	15,270	14,470	4,324
6	태국	11,656	10,968	12,564	14,092	3,848
7	오스트레일리아	4,456	4,677	7,946	10,144	2,834
8	말레이시아	7,291	6,575	8,148	9,124	2,374
9	인도네시아	5,703	5,382	7,587	9,641	2,567
10	인도	4,538	4,435	6,950	7,086	2,188
	기타	47,975	48,826	64,320	68,386	20,154
	합계	253,070	262,700	332,234	358,901	99,60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4(누계)
수출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16,273(-26.3)
수입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8,671(-7.3)
무역수지	27,107	27,931	32,763	34,246	7,602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4(누계)
반도체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3,967(-29.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3,145(-26.9)
석유제품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1,074(-31.5)
무선통신기기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733(-20.3)
합성수지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619(-41.4)
기구부품	2,230(-4.4)	2,241(0.5)	2,405(7.3)	2,194(-8.8)	550(-32.6)
플라스틱 제품	1,210(0.4)	1,115(-7.8)	1,174(5.3)	1,067(-9.2)	290(-23.0)
계측제어분석기	783(12.4)	669(-14.5)	957(43.0)	793(-17.1)	288(-5.5)
자동차부품	668(40.9)	673(0.8)	924(37.3)	1,168(26.4)	283(-24.1)
철강판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277(-30.3)
기타	16,678	15,437	17,039	17,242	5,047
합계	48,178(-0.9)	48,511(0.7)	56,729(16.9)	60,972(7.5)	16,273(-26.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4(누계)
무선통신기기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1,498(-36.1)
의류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1,221(1.7)
컴퓨터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868(3.7)
반도체	471(19.1)	561(18.9)	750(33.8)	787(5.0)	505(95.4)
신변잡화	1,053(7.4)	1,029(-2.2)	984(-4.4)	1,250(27.2)	434(6.8)
산업용 전기기기	479(14.8)	574(20)	725(26.2)	970(33.8)	426(42.7)
목재류	657(-17.1)	632(-3.9)	755(19.5)	942(24.8)	272(-1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197(-28.6)
기구부품	512(15.1)	481(-5.9)	624(29.6)	654(4.8)	166(-26.4)
영상기기	356(-2)	406(14)	460(13.2)	463(0.7)	148(-22.3)
기타	6,331	6,474	8,161	9,103	2,936
합계	21,072(7.3)	20,579(-2.3)	23,966(16.5)	26,726(11.5)	8,671(-7.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6	7.6	8.7	5.3	8.0	
	2022년 4Q	%	2.1	7.2	7.0	5.0	5.9	
	2023년 1Q	%	0.1	6.4	5.6	5.0	3.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124.9	N/A	126.2	N/A	7.8%
		2023년 2월	-	119.0	9.5	120.6	N/A	3.6%
		2023년 3월	-	128.5	16.0	130.6	N/A	△1.6%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N/A	120.8	N/A	N/A
		2023년 2월	-	50.0	52.7	118.4	51.2	51.2
		2023년 3월	-	49.9	52.5	118.7	51.9	47.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108.4	N/A	100.5	119.9	N/A
		2023년 2월	-	112.0	N/A	N/A	122.4	N/A
		2023년 3월	-	112.6	N/A	N/A	123.3	N/A
	소매판매	2022년(연간)	-	100.3	4.5%	161.5	6.2%	19.8%
		2023년 2월	-	91.2	6.6%	166.6	0.6%	13.2%
		2023년 3월	-	103.6	6.3%	168.6	4.9%	13.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6.1	5.8	3.3	4.2	3.2
		2023년 2월	%	6.3	8.6	3.7	5.5	4.3
		2023년 3월	%	5.5	7.6	3.4	5.0	3.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N/A	N/A	9.0	3.87	△11.0(누계)
		2023년 2월	%	N/A	N/A	11.5	N/A	△38.0(누계)
		2023년 3월	%	N/A	N/A	11.5	N/A	△19.3(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2.1	N/A	3.8	N/A	2.3
		2022년 4Q	%	1.9	4.8	3.5	N/A	2.3
		2023년 1Q	%	2.4	4.7	3.5	5.5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15.6	14.5	25.0	26.1	7.1
		2023년 2월	%	△3.2	△18.1	9.8	4.5	11.0
		2023년 3월	%	△6.5	△9.1	1.4	△11.3	△14.8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20.1	17.3	31.3	21.0	8.6
		2023년 2월	%	△4.7	△12.1	12.4	△4.3	△6.7
		2023년 3월	%	△11.0	△2.7	△1.8	△6.3	△11.1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비즈니스 웨비나

2023.06.07.(수)~09.(금) 14:00~16:00

온라인 개최 YouTube KOTRA 비즈니스 채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현지 정부 대응 전략과 2023년 현지 소비시장 트렌드 등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현지에서 전하는 비즈니스 현장정보에 관심있는 기업분들을 모십니다!

프로그램

일자	시간(한국기준)	내용	연사
6.7 (수) 베트남 	14:05~ 14:45 (40')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PhD. Truong Quang Hoan
	14:45~ 15:25 (40')	포스트 코로나 베트남 소비자 트렌드	NICE Retail Vietnam 유영국 법인장
	15:25~ 15:50 (25')	베트남 관세 주요 이슈/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KOTRA 하노이 무역관 박민설 관세사
6.8 (목) 인도네시아 	14:05~ 14:25 (20')	한-인니 통상환경 및 주요 제도 안내	Prime Expert Trade Analyst Mr. Ir. Marthin, MA
	14:25~ 14:45 (20')	23년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및 소비자 트렌드	istyle.id 유승현 CCO
	14:45~ 15:05 (20')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제도 살펴보기	법무법인 K&K Ms. Risti 변호사
6.9 (금) 인도 	14:05~ 14:35 (30')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인도의 대응 전략은?	KOTRA 뉴델리센터 이정선 운영팀장
	14:35~ 15:05 (30')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 소비시장 트렌드	KOTRA 뉴델리 한송옥 무역관과장
	15:05~ 15:40 (30')	인도 합작 투자시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이진 변호사



클릭하여 신청글로 이동



Vietnam-Korea
Business Cooperation Center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